

# 최근 국외 뉴테러리즘의 사례분석과 국내 발생가능 유형에 대한 연구\*

전 용 재\*\* · 이 창 배\*\*\* · 이 승 현\*\*\*\*

## 〈요 약〉

열망을 성취하기 위한 도구로 테러리즘은 인류의 역사와 공존해 왔고, 범죄학의 연구대상으로 발전하였지만, 기존의 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한정하고 있어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미흡하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테러리즘의 주요 대상이 되었고, 피해가 대규모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학술적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국외의 주요 테러리즘 사건에 대한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의 AHP 분석을 병행하여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도출하고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사회불만세력이 사제폭발물·차량·드론 등의 수단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발견되었다. 결과에 따라 첫째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 방호능력의 제고, 둘째, 직무교육의 정기화를 통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 셋째, 드론의 등록기준 강화, 넷째, 급진화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예방 및 대응의 균형적 접근을 통해 테러리즘으로부터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뉴테러리즘, 다중이용시설, 사례분석, AHP 분석, 전문가 설문**

\* 이 논문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의 ‘대규모 및 도심복합테러 대응 연구 용역’ 보고서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수료) (공동저자)

목 차
I. 서 론 II. 연구의 배경 III. 연구방법 IV. 연구결과 V. 논의 및 결어



## I. 서 론

테러(terror)라는 용어는 오늘날 테러리즘(terrorism)의 동의어 혹은 약칭으로서 혼용된다(박동균, 2011). 하지만, 테러리즘의 의도성을 감안할 때 테러와의 개념적 구분이 마땅히 요구되며 선행연구에서도 상기 두 용어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이정훈·최인규·이민형, 2011). 테러는 ‘떨거나 소스라치게 하다’라는 라틴어 ‘Terrere’에서 기원하며, ‘공포’, ‘공포 조성’, ‘커다란 공포’ 등을 느끼는 ‘마음의 상태(a state of mind)’를 의미하는(권옥국·김윤영, 2017) 반면, 테러리즘은 ‘조직화된 사회적 활동(organized social activity)’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된다(권정훈, 2017). 『브리태니커 세계 대백과사전』에서는 테러리즘을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나 대중 또는 개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폭력을 사용하는 조직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sup>1)</sup>

테러리즘에 대한 정의만큼 유형 또한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테러리즘의 발생 특징은 요구조건과 공격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대량살상 무기의 사용으로 피해가 대규모화되었으며, 언론매체의 활용을 통해 공포와 두려움

1) 브리태니커 온라인, [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t2\\_556a](http://premium.britannica.co.kr/bol/topic.asp?article_id=b22t2_556a) (검색일: 2017.11.14.), “테러리즘” 참조.

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이른바 뉴테러리즘(new terrorism)의 확산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대두는 범죄학 연구에 새로운 화두를 제시하였으나, 기존의 선행연구 중에서 테러리즘의 발생 추세와 국내 발생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고, 경험적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는 다소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권오국·김윤영, 2017; 권정훈, 2017; 윤지원, 2017; 윤민우, 2017; 박철현, 2010).

이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연구의 목적은 최근 발생한 국외의 뉴테러리즘 유형의 사건들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최근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주요 테러리즘 사건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성들을 도출한다. 또한 테러리즘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원인, 대상, 수단 등에 있어서의 주제어들과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특성을 근거로 전문가 집단에게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가능성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에 따라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대응 현황을 검토하여 최근의 테러리즘의 발생 경향에 대한 대응역량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II. 연구의 배경

### 1. 테러리즘의 변천

테러리즘은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시절, 자코뱅당의 공포정치(region of terror)에서 태동되었다(장석현·이대성, 2011). 당시 테러리즘은 국가가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합법적인 권력을 가진 지배층에 의해 자행되는 관제테러리즘(state terrorism)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이만중, 2014). 다만 조직적인 폭력의 사용은 용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기원전 전부터 존재하였다(김상범, 2002).

테러리즘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사용되기 전까지 시기를 고전적 테러리즘의 시대로 간주할 때, 그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근대국가의 형성과 독립, 민족의식에 의한 민족해방 투쟁시기를 근대적 테러리즘의 시대라 칭하며,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지속되고 국제적 테러리즘이 성행하던 1960년대 초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시기

를 현대적 테러리즘의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로의 진입과 함께 등장한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행위의 시기는 뉴테러리즘의 시대로 분류된다(강영숙, 2016).

생존권적 이익·정치 및 종교적 갈등은 고전적 테러리즘 시대 폭력의 원인으로 기능하였으며 폭력적 위협이나 암살과 같은 원초적 무력을 통하여 발현되었다. 근대적 테러리즘의 시대에는 국가독립·민족해방운동·정치적 대립의 긴장관계를 역전시키기 위한 저항의 일환으로 폭력이 활용되었다(강영숙, 2016). 예를 들어 19세기 후반 서유럽,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발생한 무정부주의자들에 의한 요인암살은 근대적 테러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이정훈 외, 2011).

1960년대 후반기에 이르러 무차별적인 대량학살, 항공기 납치 등 테러리즘은 그 성격과 규모, 방법 등에서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특히 1967년 6월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패한 아랍국들은 팔레스타인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테러리즘을 선택함으로써 ‘국제 테러리즘’의 태동을 선포하였다(송재형, 2003). 1980년대에는 각국의 정부도 테러리즘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테러리즘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테러리즘의 정착화가 진행되었다(권정훈, 2010).

1990년대 후반 이후, 동경지하철 가스사건과 미국의 9/11 사건 등 민족적·종교적 이념대립에 기반한 테러리즘의 심화로 인하여 전세계가 테러리즘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테러리즘의 방지를 위한 선제공격 전쟁이 발생하면서 이른바 ‘뉴테러리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권정훈, 2010).

## 2. 뉴테러리즘의 등장

뉴테러리즘은 1999년 미국방부 등의 후원을 받는 미국의 민간 연구소 랜드(RAND)에서 최초로 개념화되었다. 뉴테러리즘이란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가에 대한 적대감이나 ‘거대한 사탄문화’ 등 추상적인 명분으로 말미암은 극단주의자의 테러리즘을 의미한다(곽영길, 2009). Hoffman(2003)은 전통적 테러리즘과 방식이나 피해 규모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새로운 테러리즘을 뉴테러리즘이라 정의하였다.

박재풍(2011)은 뉴테러리즘의 의미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뉴테러리즘의 특징을 아홉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테러집단과 우호세력을 보호하고 공포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정체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물론

요구조건 제시도 없기 때문에 색출과 근절이 곤란하다. 둘째, 무차별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사살하여 전쟁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 셋째, 테러조직 간 사이버 연결망을 구축하고 있어 실체의 파악 및 조직 무력화가 제한된다. 넷째, 압축적인 시간 내에 상황이 종료되기 때문에 대응시간이 부족하다. 다섯째, 일상생활에 활용되는 모든 장비가 무기화된다. 여섯째, 인명피해의 극대화를 위한 신종대량 살상무기가 활용된다. 일곱째,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포가 확산된다. 여덟째, 테러의 대형화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증대된다. 아홉째, 중산층 출신과 대학 재학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춘 테러리스트가 나타나고 있으며 대개 범죄 경력이 전무하여 정보기관에 인지되지 않는다.

뉴테러리즘은 테러리즘 조직이 어느 특정 국가나 지역에 한정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한 국가에서 조직원을 모집·구성하고, 종교적 이상주의에 심취해 있으며,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을 자행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테러리즘과 구분될 수 있다(Sandole, 2006). 뉴테러리즘의 주체는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도 포함될 수 있으며(유형창, 2012), 개인이 사회적 불만의 해소를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테러리즘 공격을 자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테러리즘 행위자는 물론, 테러의 대상 역시 상징적인 인물이나 시설물 등 특정 대상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을 살상하거나 다중이용시설까지 공격의 대상으로 확대하고 있다(윤태영, 2014). 이러한 연상목표물 즉, 소프트타겟(soft target) 테러리즘은 공권력에의 도전에 비하여 공격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적은 비용으로 대규모의 피해를 유발한다. 아울러 테러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일반인에게도 ‘나도 언제 어디서든 테러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심을 조성하는 등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오세연·윤경희, 2016).

### 3. 국내 테러리즘 발생 환경

우리나라는 이전까지 테러 안전지대로서 ‘청정국’의 지위를 누려왔으나(권오국·김윤영, 2017), 정치·사회·문화적 변동을 고려한다면, 테러리즘의 발생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북한의 테러리즘 전략·전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과 적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다(이만중, 2014에서 재인용). 6·25 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테러는 형태만 달리할 뿐, 체제 전복을 위한 테러리즘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1958년 대한항

공 소속 여객기 ‘창랑호’ 납치를 시작으로 1968년 청와대 습격과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83년 아웅산 폭탄테러, 1987년 KAL기 폭파,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2015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테러 등 지상 및 공중, 그리고 해상과 해외를 가리지 않고 민간인 납치, 국가 중요시설 파괴 등” 군사공격에 필적하는 테러리즘을 감행하였다(김윤영, 2016). 재래식 공격 외에도 사이버 테러까지 병행하고 있어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인터넷에 의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혼란과 공포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이상호, 2016).

우리나라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리즘은 아직 발견된 바 없으나 서유럽의 사례에서 비춰볼 때 전혀 희박한 것은 아니다(윤민우, 2014). 지난 2015년 9월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IL(Islamic State of Iraq and the Levant)은<sup>2)</sup> 온라인 영문 선전지 ‘다비크’에서 국제동맹군 합류 국가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지칭하며 관련 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하였다. 또 같은해 11월에는 테러 위협을 담은 온라인 동영상 을 통하여 ‘ISIL에 대항하는 세계 동맹국’이라며 60개국 국기를 표시하였는데 태극기도 포함되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오산·군산 소재 미국 공군기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를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하여 유포하면서 ‘십자군과 싸워라, 무슬림을 위해 복수하라’고 선동하는 등 테러리즘 위협을 지속하고 있다.<sup>3)</sup> 더욱이 경제적 번영, 정치적 자유, 사회적 진보, 그리고 문화적 매력으로 인한 국내 이민자 수의 증가와 상당수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팔레스타인, 나이지리아 등을 포함하는 무슬림 인구라는 점은 자생테러리즘(home-grown terrorism)의 출현을 예고한다(윤민우, 2014).

정치·사회·문화적 급격한 변동으로 인하여 우리나라도 테러리즘 공격의 발생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테러리즘 발생 추세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윤민우(2017)의 연구에서는 국내 테러 발생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평가하고자 하였다. 목표물의 취약성을 근거로 EVIL DONE(Exposed, Vital, Iconic, Legitimate, Destructible, Occupied, Near, Easy)과 CARVER(Criticality, Accessibility, Recuperability, Vulnerability, Effect, Recognizability)의 기준을 적용하여 국가중요시설

2) 이라크 및 시리아 일부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이슬람교 수니파 무장테러단체를 일컫는다. 세계는 ISIL을 국가가 아닌 테러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다(오세연·윤경희, 2015).

3) 연합뉴스 (2016, 06, 19). 국정원 “IS, 주한미군 사설·우리 국민 테러대상으로 지목”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9/0200000000AKR2016\\_06190226951001.HTML](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9/0200000000AKR2016_06190226951001.HTML), 검색일 2011. 11. 14.

과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리즘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샘플로 설정된 다중이용 시설을 평가하였으나, 평가의 예시를 보여주는 정도의 결과만이 제시되었고, 대상 시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Newman & Clarke, 2007). 이러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 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판단되지만 평가기준의 적용이 종합적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박철현(2010)은 자생테러리즘 발생 원인을 고려하여 이슬람 자생테러리즘을 중심으로 배경요인, 촉발요인, 기회요인의 측면에서 한국에서의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슬람 문화의 유입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연구로서 Precht(2007)의 자생 테러리즘 동기요인의 기준을 적용하였지만, 경험적인 자료의 분석을 동반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최근 발생한 뉴테러리즘의 유형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의 발생가능 유형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자료의 활용에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외의 사례분석과 전문가 설문을 통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수행되었다.

### Ⅲ. 연구방법

####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이 연구는 국외 뉴테러리즘 유형의 주요 발생 특성 및 유형에 대한 실증분석의 방법으로 사례분석과 전문가 집단 대상 설문을 활용하였다. 사례분석의 대상은 최근에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을 선정하였다. 뉴테러리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대규모의 피해를 발생시킨 사례 중 사상자가 20명 이상인 사건들을 포함하였고 그 결과, 프랑스 파리(2015년), 벨기에 브뤼셀(2016년), 프랑스 니스(2016년), 미국 올랜도 나이트클럽(2016년),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2017년), 영국 런던 브리지(2017년) 등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들을 포함하였다. 이러한 사건들을 선정한 근거는 최근 발생한 상징적 테러리즘사건들이 그동안 안전한 서구사회로 인식되었던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확산 및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대부분의 가해자들

이 내국인, 이민자 및 이민자 2세 출신이고 ‘자생테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특수성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사례분석의 과정에서 분석 자료는 관련 사례에 대한 자료들 중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 공개되어 있는 뉴스 기사, 연구 논문, 관련 보고서 등 문헌 자료에 근거하여 수집하였다.

전문가 설문은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실무와 학계의 전문가를 대표할 수 있는 집단을 포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 국가정보원, 경찰청 소속의 테러업무 담당자들과 관련 분야의 학자들 중에서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의 방법을 통해 21명을 선정하고 2017년 10월 중에 설문을 진행하였다.

## 2. 사례분석의 기준 및 설문의 변수

테러리즘의 발생 유형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양한 기준을 근거로 사례분석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발생 원인, 공격 수단, 공격대상의 형태 등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발생원인은 가해자가 테러리즘 공격을 수행하게 된 목적 혹은 동기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문화적 갈등을 하위 범주로 설정하였다. 공격 수단은 테러리즘의 가해자가 선택한 공격의 수단 혹은 무기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폭발물, 개인화기, 도검류 등 구체적인 유형을 의미한다. 공격대상의 형태는 최근 테러리즘 공격의 주요한 대상으로 등장하는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시설과 국가기반시설, 정부시설 등을 포함하였다.

테러리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설문에는 포함된 변수들은 국내외 선행연구를(윤민우, 2017; Global Terrorism Index, 2017)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하여 테러리즘 사건발생의 주요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테러리즘의 수단, 테러리즘의 대상 등을 포함하였다. 주요 위협요인의 세부 항목은 북한의 위협, 급진주의 세력의 증가,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 이슬람 인구 및 문화의 확산, 북한이탈주민의 유입 증가, 그 외 다양한 사회불만 세력의 증가 등을 설문하였고, 테러리스트로 국제테러리즘 조직, 북한, 자생테러리스트의 위협에 대한 문항을 설문하였다. 테러리즘의 주요한 수단으로는 개인화기, 근거리 무기(도검류 등), 사제폭발물, 제조폭발물,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방사능무기, 핵무기, 차량, 무인기(드론), 항공기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표 1> 참조)

〈표 1〉 테러리즘 공격 수단

개인화기	개인이 휴대하며 운용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화기류. 주로 소총, 권총 등의 총기류가 해당
개인 근거리무기	사람을 살상하거나 기물을 파괴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닌 일체의 기구 중 도검류와 같이 발사체를 지니지 않은 개인운용 기구
폭발물	열, 충격 및 기계적인 작용에 의해 짧은 시간에 급격한 화학반응에 의해 다량의 가스와 열을 급격히 발생시켜 순간적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는 화합물 또는 혼합물 ① 사제 폭발물: 개인에 의하여 정해진 규격이나 절차와는 무관하게 제작되어 설치한 폭발물 ② 제조 폭발물: 정해진 규격과 절차에 의거하여 제작된 폭발물
CBRN: 화학(Chemical) 생물(Biological) 방사능(Radiological) 핵물질(Nuclear)	① 화학무기: 독성 화학작용제와 이를 투발하기 위한 탄약 및 살포 장치를 총칭하는 무기 ② 생물학무기: 질병 매개체를 포함한 생물학적 작용제에 의하여 생물을 살상·가해하는 무기 ③ 방사능무기: 생물·물체·공기·물 등 환경을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로 원자폭탄, 수소폭탄, 코발트폭탄 등이 이에 해당함 ④ 핵무기: 원자핵의 분열·융합반응으로 일어나는 방대한 에너지를 살상 및 파괴효과에 이용하는 무기
교통수단	테러공격을 자행하기 위한 수단의 운반 목적 혹은 그 자체로 수단이 되는 교통수단 ① 차량 ② 드론 ③ 항공기

테러리즘의 대상은 대중교통시설(공항시설, 철도역사, 지하철역사, 항만시설, 버스터미널), 대중교통수단(항공기, 기차, 지하철, 선박, 버스), 공중이용시설(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국가기반시설(공공서비스 제공 시설, 연료시설, 방사능시설, 핵물질 시설, 원자력 시설), 정부시설(정부청사, 경찰시설, 군사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발생가능성에 대해서 설문을 진행하였다.(〈표 2〉 참조)

〈표 2〉 테러리즘의 공격 대상

대중교통시설	도로·철도·궤도·항만·어항·수로·공항·비행장 등 교통수단의 운행·운항 또는 항행에 필요한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사람의 이동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운항 또는 항행을 보조하는 교통안전표지·교통관제시설·항행안전시설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 ① 공항시설 ② 철도역사 ③ 지하역사 ④ 항만시설 ⑤ 버스터미널
대중교통수단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을 이용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동하는 것으로 버스, 철도, 항공편, 연락선 등의 정기적인 연결편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 이동 수단 ① 항공기 ② 기차 ③ 지하철 ④ 선박 ⑤ 버스
공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정의된 시설 중 특히 많은 사람이 출입하고 이용하는 아래의 시설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판매시설 ④ 의료시설 ⑤ 숙박시설
국가기반시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① 공공서비스 제공시설 ② 연료시설 ③ 방사능 시설 ④ 핵물질 시설 ⑤ 원자력 시설
정부 시설	위해세력의 공격으로 인하여 파괴되었거나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국가경제와 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시설 ① 정부청사 ② 경찰시설 ③ 군사시설

### 3. 분석 방법

테러리즘 유형에 대한 사례연구는 분석에 포함된 여섯 개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발생 원인, 공격 수단, 공격 대상에서 드러나는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사례연구는 교육학, 사회학, 범죄학 등에서 복잡한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질적 연구방법으로 특정 사안에 대한 대표적 사례들을 선정하고 이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계량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허경미, 2015).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 유형의 도출을 위해 수행한 전문가 집단 설문 자료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방법을 통해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

였다. 분석의 결과는 각 범주별 세부항목의 상대적 중요성 혹은 심각성을 순위에 따라 비교하여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을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테러리즘 수단, 테러리즘 대상에 따라 도출하였다. AHP 분석은 계량적 방식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개발된 기법으로 복잡하게 나열된 대안 간의 상호비교를 통해 연역적 및 귀납적 방식을 조합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Saaty & Vargas, 2001).

## IV. 연구결과

연구의 결과는 크게 사례연구와 전문가 자문 결과의 분석으로 구분되어 있다. 사례연구의 결과는 앞에서 제시한 6개의 테러리즘 사건들에 대한 사건개요를 먼저 서술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공통점으로 발견되는 원인, 공격 수단, 공격 대상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1. 사례연구

#### 1) 사건개요

##### (1) 프랑스 파리 테러리즘(2015)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 밤 21경 독일과의 친선경기가 펼쳐지던 생드니의 축구 경기장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파리 10구, 11구 등 총 여섯 곳의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하였으며, 범인을 제외한 129명의 사상자와 25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 (2) 벨기에 브뤼셀 테러리즘(2016)

2016년 3월 22일 오전 8시경 벨기에 브뤼셀의 자반텨 국제공항에서 시작된 폭탄 공격에서 시작하여 브뤼셀 시내에 위치한 말베이크 역과 슈만 역 사이를 지나가던 지하철에서 2차 공격이 발생하여 테러리스트 2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사망하고 250여 명이 부상을 당했다.

**(3) 프랑스 니스 테러리즘(2016)**

2016년 7월 14일 밤 10시 30분경 프랑스 니스에서 테러리스트가 트럭으로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축제를 즐기던 시민 군중을 향하여 돌진하여 최소 86명의 사망자와 200여명 이상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사건으로, 25톤 화물 트럭이 2km 구간에 걸쳐 시민들을 공격하였고, 테러리스트는 주변에 있던 프랑스 군경에 의해 사살되었다.

**(4) 미국 올랜도 총기난사 테러리즘(2016)**

2016년 6월 12일 새벽 2시경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 ‘펄스(Pulse)’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테러리즘 공격으로 사살된 범인을 포함하여 사망자가 최소 50명이며 부상자 역시 50여명이 발생한 사건이다.

**(5)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 테러리즘(2017)**

2017년 5월 22일 오후 10시 35분경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에서 아리아나 그란데의 3집 투어 공연이 끝난 직후 매포소 근처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으로 테러리스트가 직접 제작한 것으로 파악된 못폭탄(nail bomb)이 사용되었다. 추후 자살폭탄 테러로 밝혀졌고, 범인 포함 23명이 사망하고 64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6) 영국 런던브리지 테러리즘(2017)**

2017년 6월 3일 밤 10시 경 런던 브리지와 인근의 버러 마켓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가해자들은 밴 차량을 이용하여 런던 브릿지를 지나가는 관광객을 포함하여 20여명의 시민들을 향해 돌진하였고, 다리를 지나 마켓에서 하차한 3명의 남성들이 인근 술집들과 레스토랑에 들어가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칼을 휘두르고 가격하던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에게 모두 사살되었다.

**2) 원인**

앞에서 제시한 여섯 개의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테러리즘 공격의 원인은 종교적 갈등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사례에서 가해자들은 ISIL의 소속 단원이거나,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급진화되어 테러리즘 공격을 수행한 ‘외로운 늑대(lone wolf)’형의 범인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예를 들어,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은 사건 다음날 ISIL이 자신들의 소행임을 주장하며

테러리스트들의 사진과 함께 ISIL 조직 내 이름을 공개하여 총 아홉 명의 범인들이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가해자들은 대부분 이민 2세이거나 난민 출신으로 그들이 속한 지역사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류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주변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지역주민들과 종교 및 인종 등이 달라 적극적으로 융화되지 못하여 종교적 혹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평소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 3) 공격 수단

사례 분석의 결과, 테러리즘 공격의 주요한 수단으로 폭발물이 가장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고, 소총, 수류탄 등의 개인화기를 사용한 총격과 그 외의 무기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물 공격은 프랑스 파리(2015), 벨기에 브뤼셀(2016), 영국 맨체스터 경기장(2017) 등의 테러리즘 사건에서 발견되었고, 무장공격은 역시 프랑스 파리(2015), 미국 올랜도(2016), 영국 런던브리지(2017) 사건 등에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 폭발물은 접근의 용이성과 대규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테러리스트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으로 보여 질 수 있고, 이러한 폭발물은 제조된 형태와 사제폭발물이 모두 공격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또한 최근의 테러리즘 사건에서와 마찬가지로 생활편의도구인 차량을 활용한 공격 유형이 사례분석에서 발견되었다. 프랑스의 니스에서 발생한 사건과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서 발생한 테러리즘 사건에서 트럭이나 밴을 이용해 시민들을 공격하였고, 폭발물이나 무기에 비해서 일상생활에서 쉽게 획득할 수 있고, 공격의 준비 단계에서 발각이 어렵다는 장점으로 인해 다수의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다.

### 4) 공격 대상

위의 사례분석에서 발견된 공격 대상의 공통점은 테러리스트들이 다수의 시민들이 운집한 다중이용시설을 공격목표로 선택했다는 점이다. 스타디움, 극장, 카페, 바, 레스토랑, 나이트클럽 등의 다중이용시설과 국제공항이나 기차역사 등 교통시설 뿐만 아니라 런던브리지나 니스 해변과 같이 개방적인 공간도 시민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장소라면 공격의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이러한 시설을 대상으로 폭발물이나 무장공격 형태가 복합적으로 사용되어 대규모의 인명 피해를 유발하고, 테러

리즘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야기하였다. 기존의 국가주요시설을 대상으로 공격했던 테러리즘 형태와 다르게 스타디움, 카페, 콘서트홀과 같이 불특정다수인들이 모여 있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설정하여 최근의 테러리즘 변화 추세를 보여준 사례들이다.

## 2. 전문가 설문

설문의 결과는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에 대해서 위협요인, 테러리스트 위험성, 공격 수단, 공격 대상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제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이를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위협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된 테러위험요인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제시된 요인들을 전체 100.0%로 설정했을 때 약 36.4%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북한으로 인한 긴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에 해당하지만, 사회 불만세력의 증가와 급진주의세력도 각각 18.8%와 16.6%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테러리즘 사건 발생의 주요한 위협요인으로 분류되었다. 그밖에도 이슬람 인구 및 문화의 확산, 외국인 체류자 증가,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증가로 인한 갈등의 경우에는 9.6%, 9.3%, 9.2% 정도의 중요도에 그쳐 국내 테러위험요인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인이지만 핵심요인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다.

<표 3> 국내 테러위험요인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항목	중요도(가중치)	순위
북한의 위협	0.364	1
사회 불만세력	0.188	2
국내테러 위협요인	0.166	3
이슬람 인구	0.096	4
외국인체류자	0.093	5
북한이탈주민	0.092	6
일관성 비율	.02	

<표 4>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테러리스트의 위험성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북한을 가장 주된 테러리스트 유형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제시된 요인들 중에서

56.7%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밖에도 자생테러리스트와 국제테러조직의 경우에는 각각 25.9%와 17.4%로 북한 테러리스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지만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테러리스트 유형으로 평가하였다.

〈표 4〉 테러리스트 위험성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항목	중요도(가중치)	순위	
북한	0.567	1	
테러리스트	자생테러리스트	0.259	2
	국제테러조직	0.174	3
일관성 비율	.02		

<표 5>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리즘의 유형에서 사제폭발물을 이용한 테러를 가장 주된 공격 수단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약 20.1%의 중요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차량 및 무인기(드론)을 이용한 테러는 각각 18.2%와 13.4%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공격 수단으로 인지되고 있었으며, 개인 근거리 무기의 경우에도 11.5%로 상대적으로 주된 수단으로 인식하였다. 화학무기, 생화학무기, 방사능무기, 핵무기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수단으로 조사되었다.

〈표 5〉 테러리즘의 공격 수단 우선순위 분석결과

평가항목	중요도(가중치)	순위	
사제폭발물	0.201	1	
차량	0.182	2	
드론	0.134	3	
제조폭발물	0.115	4	
테러수단	개인근거리무기	0.085	5
	화학무기	0.067	6
	개인화기	0.063	7
	생화학무기	0.048	8
	항공기	0.043	9
	방사능무기	0.035	10
	핵무기	0.026	11
일관성 비율	0.02		

테러리즘의 주요 공격 대상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대중교통시설 27.4%, 대중교통수단 25.8%, 공중이용시설 25.2%의 순으로 중요한 공격대상으로 제시하였지만, 국가기반시설 및 정부시설은 각각 12.3%와 9.4%로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은 공격대상을 세분화한 문항에서는 문화 및 집회시설(11.3%)을 가장 주요한 공격대상으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지하철(10.5%), 지하철 역사(8.5%), 버스터미널(6.4%), 철도역사(5.9%) 순으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표 6〉 테러리즘의 공격 대상 우선순위 분석결과

중분류 평가항목	중요도	소분류 평가항목	중요도	중합	순위
대중교통시설	0.274	공항시설	0.163	0.045	9
		철도역사	0.215	0.059	5
		지하철역사	0.309	0.085	3
		항만시설	0.078	0.021	19
		버스터미널	0.235	0.064	4
대중교통수단	0.258	항공기	0.123	0.032	14
		기차	0.208	0.054	7
		지하철	0.408	0.105	2
		선박	0.084	0.022	18
		버스	0.176	0.045	8
공중이용시설	0.252	문화 및 집회시설	0.447	0.113	1
		종교시설	0.131	0.033	13
		판매시설	0.214	0.054	6
		의료시설	0.073	0.018	23
		숙박시설	0.135	0.034	12
국가기반시설	0.123	공공서비스 제공시설	0.316	0.039	11
		연료시설	0.207	0.025	16
		방사능 시설	0.172	0.021	20
		핵물질 시설	0.15	0.018	22
		원자력 시설	0.155	0.019	21
정부시설	0.094	정부청사	0.454	0.043	10
		경찰시설	0.309	0.029	15
		군사시설	0.237	0.022	17
일관성 비율				0.0026	

## V. 논의 및 결어

목적 지향적 수단으로써 폭력의 기능을 감안할 때 테러리즘은 오랜 시간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 왔다.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적 기능으로 말미암아 고전적 의미의 테러리즘은 기원전부터 이어져왔으며(이만중, 2014), 뉴테러리즘은 이를 방증하는 현상이다. 그와 함께 테러리즘 연구는 범죄학을 위시한 사회과학의 주요한 하위분과를 구축하였다. 다만 기존의 국내연구는 대개 북한을 테러리즘의 주체로 설정하였고(정육상, 2014; 유재두, 2013; 최선우·류채형, 2012; 이제영, 2010; 이현경, 2003), 국제적 테러리즘의 추세에 관한 논의는 미흡한 실정이다. 뉴테러리즘의 시대에 이르러 연성 목표물(soft target)이 주요 대상이 된다는 점, 즉 피해의 규모를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상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이 연구는 주요 사례 분석과 AHP 분석을 시행하여 국외 테러리즘의 특징과 우리나라 발생가능성 및 형태를 진단하였다. 연구결과 국외 테러리즘의 특징은 종교적 혹은 사회적 원인에 근거하여 폭발물이나 개인 무기, 차량 등을 활용하여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AHP 분석에서도 북한이나 사회불만세력에 의해 폭발물이나 차량, 드론 등을 사용하여 교통시설을 위시한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문가 집단에 의해 평가되었다. 아울러 테러리스트와 관련하여, 자생 테러리즘이 중요한 위협으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사회불만세력 및 급진주의세력의 증가가 우리나라 테러리즘 발생 가능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개선을 제시한다. 첫째, 테러리즘의 공격 수단을 고려하여 환경설계를 통한 다중이용시설의 방호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운송수단이 아닌 무기로서 차량의 등장은 시설 방호의 패러다임에 의문을 제기한다. 예컨대 프랑스는 잇따른 테러리즘 이후 테러리즘 억제를 위하여 도심의 주요 시설과 관광지에 개인화기로 무장한 프랑스군 7,000여 명을 배치하였으나 오히려 군인을 표적으로 한 테러 공격이 잇달아 발생하는 테러대체현상을 경험하였다.<sup>4)</sup> 프랑스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시설의 물리적 변형이 아닌 인적활동 중심의

4) 뉴스시 (2017, 17, 14). 프랑스, 무장군인 배치 '상타넬 작전' 손본다... 기동성 강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3\\_0000074902&clD=10101&plD=101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823_0000074902&clD=10101&plD=10100), 검색일 2017. 11. 14.

방호전략은 그 자체로 테러리즘의 표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접근을 저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시설 자체 내구성의 보강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08년 11월 인도 뭄바이 시내에서 연쇄 폭탄테러가 발생하자 테러에 취약한 다중이용 건축물의 테러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축물 테러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건축물이 들어서는 대지는 가급적 주변지역보다 높게 조성해 감시가 쉽게 하고 대지의 경계에는 조경수 등을 심어 폭발물을 적재한 차량이 건축물로 돌진하는 것을 방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바닥면적 20,000m<sup>2</sup> 이상인 극장, 백화점 등 다중이용 건축물과 50층 혹은 200m 이상의 초고층 건축물로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그 밖의 건축물은 테러 공격에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예방설계 적용대상의 기준을 완화하여 시공 범위의 확대가 요구된다.

둘째, 사제폭발물의 재료로서 유해 화학물질 유통 방지를 위한 사이버 감시단의 전문성 제고가 요구된다. 사제폭발물 원재료의 구입 및 제조방법의 온라인 공유에 대한 대책으로 화학물질안전원은 2011년 ‘화학물질 사이버 감시단’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감시단은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유해 화학물질 및 사제폭탄 제조방법에 관한 게시물을 상시적으로 감시 및 차단한다.<sup>5)</sup> 다만 자원봉사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그 효과성에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특히 화학물질 용어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정기적인 직무교육을 제공하고 선정과정을 보완하여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 결과에서 흥미로운 점은 드론의 대두이다. 드론은 휴대가 용이하고 비행 후 목표지점까지 이동하는데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원격 조종이 가능하므로 조종자가 노출될 가능성이 낮다. 또한 공중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목표물까지 이동이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외국은 드론을 이용한 테러리즘을 우려하고 있다(김충호, 2017).

우리나라에서는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의 개정안이 11월부터 적용되어 드론의 야간비행이 가능해지는 등 상용화의 발판이 마련되었다. 다만 안전기준을 충분히 고려치 않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는 테러리즘의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5) 머니투데이 (2017, 11, 14). 화학물질안전원, 제5기 화학물질 사이버감시단 출범,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72717537855920&outlink=1&ref=http%3A%2F%2Fsearch.naver.com>, 검색일 2017. 11. 14.

영국, 미국 등 주요국에서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의 소유주에게 등록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무게가 12kg을 초과하는 드론만 등록·관리하고 있다.<sup>6)</sup> 즉, 상당수의 드론이 관리망에서 벗어나 있다. 테러리즘 수단으로서 드론의 매력성을 감안할 때 등록기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급진화 상담센터의 설치를 제안한다. 현행 대테러방지법은 테러 예방을 위하여 개인의 통신정보를 수집<sup>7)</sup>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억제 전략은 위험인물로 간주된 자에 한하여 적용된다. 즉, 급진화 이전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무한 실정이다. 독일의 경우 급진화 예방 정책의 전략으로 상담센터를 활용하고 있으며(Counter Extreme Project, 2016), 영국 또한 Channel 프로그램을 통하여 급진화 초기단계에서의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National Coordinator for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2016). 상담센터는 의심인물 주변인의 신고를 통하여 급진화 초기단계에 개입, 교육을 통한 사회적 재통합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치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실증분석을 적용하여 국외 테러리즘의 최근 유형 특성을 발견하고 우리나라의 발생가능성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를 보완하고자 했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사례분석에 포함된 테러리즘 사건들이 6개에 국한되어 그 결과의 일반화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가 설문 항목에 포함된 공격 수단과 공격대상의 범주 선정에 선행연구를 참고하였지만, 국내 대응체계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은 여전히 한계로 남아있다. 후속 연구에서 이러한 점을 보완한다면, 우리나라의 테러리즘 발생 가능 유형의 발견에 보다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6) 전자신문 (2017, 11, 14), 드론 규제, 해와는 지금... 한국은 오히려 느슨한 편, <http://www.etnews.com/20171029000026>, 검색일 2017. 11. 14.

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9조 제1항 참조.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강영숙. (2016). 테러학. 인천: 진영사.
- 곽영길. (2009). 뉴테러리즘의 실태와 대응전략. 「한국테러학회보」, 2(1): 32-56.
- 권오국·김윤영. (2017).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및 시사점 분석. 「통일문제연구」, 29(1): 161-197.
- 권정훈. (2010). 국제 테러리즘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대안. 「한국치안행정논집」, 7(3): 231-253.
- 권정훈. (2017a). 테러리즘과 대테러시스템의 재조명.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권정훈. (2017b). 한국 대테러시스템 운영의 재모색. 「한국경호경비학회지」, (51): 151-170.
- 김상범. (2002). 테러리즘의 발전 추세와 미래 양상. 「국방연구」, 45(1): 123-155.
- 김윤영. (2016). IS테러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과 대남테러: 대한민국도 국제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월간북한」, (529): 73-79.
- 김충호. (2017). 한국군의 뉴테러리즘 위협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수도서울 테러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동균. (2011). 뉴테러리즘에 대비한 한국 민간경비의 정책과제. 「2011년도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8): 277-289.
- 박재풍. (2011). 뉴테러리즘의 의미재정립과 대응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8(1): 165-187.
- 박철현. (2010). 국내 자생테러 발생가능성에 대한 연구: 이슬람 자생테러를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1(4): 61-89.
- 송재형. (2003). 고전적 테러리즘과의 비교 분석을 통한 뉴 테러리즘 양상에 대한 연구. 「군사학연구」, 1: 113-154.
- 오세연·윤경희. (2015). IS테러단체의 공습확대에 따른 자국 내 테러방생 위협성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 277-308.
- 오세연·윤경희. (2016). 자국내 IS 테러단체에 의한 소프트타겟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7: 87-117.
- 유재두. (2013). 북한 테러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연구. 「한국테러학회보」, 6(2): 72-96.
- 유형창. (2012). 국제화에 따른 한국내 자생테러 발생 가능성과 대응전략.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1): 125-155.

- 윤민우. (2014). 최근 국, 내외 테러 동향과 테러공격 방법에 대한 분석. 「경찰학논총」, 9(3): 221-249.
- 윤민우. (2017). 해외 테러리즘 최근동향과 국내 테러발생 위험성 예측·평가 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6(1): 123-158.
- 윤태영. (2014). 『테러리즘과 대테러리즘』. 경남대학교 출판부.
- 이만중. (2014). 테러리즘과 국가안보. 서울: 진영사.
- 이상호. (2016). 북한 사이버테러 양상과 대응책: 비대칭 전력으로의 활용 및 유의성. 「월간북한」, (531): 76-81.
- 이정훈·최인규·이민형. (2011). 쉬운 도시안전과 테러리즘. 서울: 청목출판사.
- 이제영. (2010). 북한의 테러 가능성과 법적 대응방안. 「한국테러학회보」, 3(2): 213-235.
- 이현경. (2003). 북한의 테러동향과 미국의 대테러 대북전략. 「북한연구학회보」, 7(1): 65-82.
- 장석현·이대성. (2011). 한국을 대상으로 한 국제테러리즘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153-179.
- 정육상. (2014).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과 경찰의 대응역량 강화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11(3): 139-164.
- 최선우·류채영. (2012).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1(1): 212-239.
- 한상암·박호현. (2016). 다문화 범죄의 테러발생 가능성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 김하일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60: 361-387.
- 허경미. (2016). 자생테러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노르웨이 오슬로 및 보스톤 마라톤테러범을 중심으로. 「경찰학논총」, 11(4), 217-250.

## 2. 외국문헌

- Counter Extremism Project. (2016a). 「Germany: Extremism & Counter-Extremism」.
- Counter Extremism Project. (2016b). 「France: Extremism & Counter-Extremism」.
- Global Terrorism Index. (2017). Insititute for Economics & Peace.
- Hoffman, B. (2003). Al Qaeda, trends in terrorism, and future potentialities: An assessment. *Studies in Conflict & Terrorism*, 26: 429-442.
- NCTV. (2016). 「National Counterterrorism Strategy for 2016-2020」.
- Newman, G. R. and Clarke, R. V., (2007). Policing terrorism: An executive's guide, The Office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rvices, U.S. Department of Justice, 2007-CK-WX-K008.
- Precht, T. (2007). Homegrown Terrorism and Islamist Radicalization: From Conversion to terrorism. Danish Ministry of Justice.
- Saaty, T. L., & Vargas, L. G. (2001). *The seven pillar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Models, methods, concepts &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pp. 27-46). Springer, U.S.

- Sandole, D. J. (2006). The Fog of War on Terrorism: US Policy, Deception, and the Continuing Slide into the Clash of Civilizations. *ILSA Journal Int'l & Comp. L.*, 13, 149.
- Woo, G. (2016). Terrorism Insurance as Insurance against the Failure of Counter-Terrorism: ISIS Attacks in Paris and San Bernardino. *RMS*. pp.2-4.

【Abstract】

## A Case Study of Recent New Terrorism and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Jeon, Yong-Jae · Lee, Chang-Bae · Lee, Seung-Hyun

Terrorism has existed in the entire human history and has become a significant topic in criminology while prior studies has focused on North Korea as the perpetrator, and this prevents an in-depth discussion of the international trends of terrorism. As soft targets are the main target of new terrorism and because we never ignore the significance of the consequences, there are needs for more studies on the topic. This study conducted a case study of major terrorism attacks and surveyed professionals in the field via an AHP analysis in order to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errorism and its potential patterns in South Korea. As a result, we found that North Korea or the left-wing may utilize homemade bomb, motor vehicle or drone for the purpose of attacking multi-use facilities in South Korea. For policy implications, we insist developing a better CPTED approach on those facilities,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cyber-watchdog via more training and education, stricter control on drone permit, and operation of counseling centers for preventing radicalization.

**Keywords:** new terrorism, multi-use facility, case study, AHP analysis, survey